中國의 唐宗海의 硏究動向에 대한 考察

大田大學校 醫史學敎室 金鎭玉 · 金容辰

The study of study trends of Tang Zonghai in China

Kim Jin-ock · Kim Yong-jin

Papers about Tang Zonghai are mostly appeared in journals, published in his home town, Sichuan. Studies are focused on his medical conception of Blood syndrome. They try to explain Tang's medical conception and local experiences by quoting the text from 『Hyuljeungron』, Blood syndrome essay. This trend is very different from study methods carried out in Korea.

Ⅰ. 緖 論

唐宗海는 四川省 彭懸사람으로 淸代 同治元年(1862년)에 태어나 民國七年(1918年) 享年 56世로 生을 마친 醫學者로서, ≪中西匯通醫經精義≫, ≪血證論≫, ≪金匱要略淺註補正≫, ≪傷寒論淺註補正≫, ≪本草問答≫, ≪醫易通說≫, ≪痢證三字訣≫ 등을 著述하였다.

그가 살던 時代는 바로 西洋醫學이 처음으로 中國에 紹介되기 始作하는 時期였으므로 社會的으로 西洋醫學의 學問에 對한 反撥과 批判이 적지 않은 時期였다. 그는 이러한 大變革時代에 文人으로서 새로운 科學文明을 아주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同時에 自己民族의 文化에 對해서도 깊은 愛着心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傳統的인 民族醫學의 卓越함과 正確性을 밝히는 同時에 또 한편으로는 西洋文化의 科學的인 觀点을 中國으로 導入하고자 하였다.

그는 東西醫學의 長短點에 對하여 즉 西洋醫學은 形迹은 상세하게 연구하였으나 氣化

에 대하여 간략하고, 韓醫學은 形迹에는 간략하나 氣化는 상세하게 연구하였다고 하여 각각의 長短點이 있으므로 “匯通中西醫, 厘正醫道, 歸於一是”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이러한 觀点들은 卽時로 當時代의 有名한 醫家인 朱沛文, 張錫純, 惲鐵樵 등의 呼應을 받아 한때 널리 이름이 알려진 中西匯通派를 形成하게 되었다.

그는 中醫와 西醫가 發生地域 및 治療方法은 서로 다르지만 그 原理는 相通하기 때문에 中醫學을 우선하여 重中輕西에 의한 中西醫匯通을 하여야 한다고 主張하여, ≪內經≫, ≪難經≫, ≪傷寒雜病論≫의 經旨를 西醫의 解剖 生理學的인 理論으로 解析을 試圖하여 ≪中西匯通醫經精義≫를 著述 하였다.

한편 그는 血證에 대하여 깊은 硏究를 하여 ≪內經≫, ≪難經≫ 등 諸書와 그의 臨床經驗을 總括하여 陰陽水火氣血論을 그 基礎로 하는 血證에 대한 專門書籍인 ≪血證論≫을 著述하였으니, 그 내용을 보면 陰陽水火氣血間에는 生理病理的으로 모두 相互資生·相互依存·相互影響·相互轉變하는 關係가 있고, 이러한 相互關係의 中心軸은 항상 脾胃가 되는 것이니 脾胃를 調하는 것을 治療의 基本原則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血證治療에 대해서는 止血·消瘀·寧血·補血의 四大綱領을 提示하면서, 止血 後 消瘀, 消瘀 後 寧血, 寧血 後 補血의 順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모든 血證에 臟腑經脈과의 關係와 發病情況과 病所를 考慮하여 辨證施治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같이 唐宗海의 中西匯通思想과 血證에 대한 觀点은 學術的인 가치가 매우 크므로 그의 이러한 醫學思想에 대하여 좀더 硏究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최근 출판되고 있는 雜誌에서 唐宗海와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여 唐宗海의 醫學에 대한 최근의 硏究動向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II. 本　　論

본 硏究에서는 최근에 出版되고 있는 각종 雜誌들에서 唐宗海와 관련된 부분을 拔萃하여 그 內容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는 方法으로 최근의 硏究動向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四川中醫 1993年 3月 pp. 8-9

血證論吐血證治特点初探

河南遂平縣人民醫院 尹國有

血證論은 血證에 대하여 專門的으로 논한 書籍으로 理法方藥을 철저하게 지켜 사용하였다. 이에 尹國有氏가 血證論에 입각한 血證治療의 臨床經驗을 기록한다고 하며 아래와 같은 논술을 하였다.

‘吐血因不同 止血法各異’에서는 吐血의 治療原則은 止血인데 반드시 病因에 따른 治療法을 使用하여야 한며, 증상에 따라서 隨證加減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胃氣上逆하여 吐血하는 경우에는 實한 것을 먼저 없애고 降氣시키는 仲景瀉心湯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虛寒證에 속하는 경우에는 手足冷, 便溏, 遺尿 등의 증상이 수반되므로 獨蔘湯을 사용하고, 眞寒假熱에는 甘草乾薑湯을 사용하고, 火가 甚한 경우에는 黃芩 黃蓮을 痰이 많은 경우에는 茯苓 등을 사용하고, 吐血의 원인이 술이나 厚味를 과다하게 섭취하여 생기는 경우에는 脈滑, 口乾, 煩熱, 大小便不利 등의 증상이 수반되므로 白虎湯加 茵陳 大黃 梔子炒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血止瘀難祛 消瘀當務急’에서는 活血消瘀法은 止血法을 사용한 후에 계속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唐宗海는 花蕊石散을 사용하여 瘀血을 小便을 통하여 배출시켜야 한다고 하였고, 동시에 聖愈湯을 사용하여 扶正補血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瘀血部位가 각기 다르므로 上焦의 瘀血에는 血府逐瘀湯이나 人蔘養榮湯을, 中焦瘀血에는 甲己化土湯을, 下焦瘀血에는 歸芎失笑散을 加減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寧血亦重要 防止再發作’에서는 吐血患者들 중에서 止血 消瘀의 治療를 한 후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沖氣가 逆上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여 四磨湯에 沈香 등을 加하여 沖氣가 上逆하는 것을 막는 寧血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補法不能忘 合用更理想’에서는 吐血이 이미 止血되었다 하더라도 患者에게는 반드시 失血로 인한 虛損이 되어 다른 症狀이 發生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補虛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특히 辛字潤肺膏로 滋補肺中陰液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을 總結하여 吐血은 臨床에서 자주보이는 病症으로 唐宗海는 辨證治療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止血後 消瘀시키고, 寧血시켜서 再發을 방지하고, 마지막으로 補法을 사용하여야 理想的인 治療가 된다고 하였다.

본 論文은 血證論중 吐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硏究한 것으로, 吐血治療는 止血이 原則인데 止血後에는 남아 있는 瘀血을 제거하며, 寧血시켜 吐血의 再發을 방지하고, 마지막으로 失血로 인한 血虛상태에 대하여 補血시켜야 완전한 治療가 된다고 하면서, 唐宗海의 吐血治療法의 톡특한 見解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으로 唐宗海가 出生한 四川省의 四川中醫에 실린 것이다.

2. 遼寧中醫雜誌 1997年 2月 pp.62-63.

唐容川治血以治冲證治經驗

解放軍第四一一醫院 汪自源 徐重明

여기에서는 血證의 治療에 대하여 衝脈과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논술을 하였다.

'治肝卽是治冲'에서는 衝脈은 血室에서 시작이 되고, 肝은 血海가 되기 때문에, 肝과 衝脈은 서로 生理·病理的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血虛하면 肝藏血이 안되어 心火旺盛하여 傷血하게 되니 補血할 경우에는 淸火시켜야 하므로 小柴胡湯에 가감하여 治療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기타의 유사한 경우에 辨證施治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治陽明卽是治冲'에서는 唐宗海의 "衝爲血海 其脈麗於 陽明 未有衝氣不逆上 而血逆上者也 仲景治血以治衝爲要 衝脈麗於陽明 治陽明卽治衝也 …… 治衝脈獨取陽明 仲景旣引其端 後人亦卽當擴而充之"라는 말을 인용하여 衝脈과 陽明胃經이 不可分의 관계에 있으므로 血病에 있어서 胃氣下泄하면 心火가 안정되어 扶正去邪하게 된다고 하여 仲景瀉心湯을 사용하라고 하였다. 한편 出血病에 있어서 痞滿證이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여 火가 下降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하며 瀉心湯을 위주로 치료하였다고 하였다.

'安腎氣卽是治冲'에서는 唐宗海의 "治陽明者 治其末 治膀胱腎間者 是治其本也 …… 若腎中陰氣大虛 而衝陽不能安宅 則用四磨湯 加熟地棗皮山藥五味枸杞子 滋陰配陽以安之"라는 말을 인용하여 衝脈과 足少陰腎經의 관계가 밀접하므로 腎氣를 安定시키는 치료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본 論文은 血證의 治療에 衝脈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血液과 관련이 있는 肝臟, 陽明經, 腎氣가 모두 衝脈과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衝脈이 血證을 治療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3. 四川中醫 1997年 4期 pp. 4-5

唐容川血證從肺論治的經驗探述

海軍第四一一醫院 汪自源 徐重明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血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술을 하였다.
'咳血'에서는 咳嗽는 氣病이나 血分을 손상하게 되어서 出血이 나타나게 되므로 治療時에는 반드시 血分의 治療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肺는 嬌臟으로 外感內傷을 막론하고 한번 津液을 손상하게 되면 虛陰火動하여 肺가 손상을 입게 되어 嗽痰咳血하게되어 肺痿重病이 생기게 되므로 寒이 火로 된 것이나, 火가 寒으로 된 것을 막론하고 모두保和湯으로 治療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咯血'에서는 咯血은 痰帶血絲한 것으로 痰咳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心主血脈部居胸中 與肺爲近 肺氣咳逆 猶易牽動心部之血"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痰血은 心腎과 관련이 깊으며 肺와도 관련이 깊다고 하였다. 치료는 治心을 爲主로 하고 治肺之痰을 겸하여야 하니 太平丸爲治肺通劑 紫菀散 保和湯 등이 滌除肺痰하는 것으로 補瀉를 겸하는 方劑라고 하였다.
'汗血'에서는 皮膚의 毛孔으로부터 스며나오는 피를 汗血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陽乘陰하여 內逆하면 吐衄하니 陽乘陰하여 外泄하면 皮膚血汗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血은 心液이고 皮毛는 肺의 合이므로, 治法은 淸心火하고 肺調하는 法을 겸하여야 하니 凉血地黃湯에 桑皮 地骨皮 蟬蛻 百合 蒲黃을 加하라고 하였다.
'血箭'에서는 毛孔으로 분수처럼 솟아나는 出血을 血箭이라고 한다. 이는 心肺火盛하여 血液이 毛孔으로 솟아 나오는 것이니 淸心火하여야하니 凉血地黃湯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鼻衄'에서는 코를 통하여 出血되는 것을 鼻衄이라고 한다. 熱氣가 陽絡을 損傷시키면 衄血이 되고 太陽의 衄血은 治肺法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肺火壅盛한 경우에는 人蔘瀉肺湯에 荊芥 菖蒲 등을 가하여야 하고, 衄血이 그치면 止衄散 및 六味地黃湯을 복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便血'에서는 大便과 小便 肺의 氣化作用에 의하여 볼 수 있는 것으로, 大腸의 병은 中氣虛陷으로 말미암아 濕熱下注하는 경우와 肺經遺熱이 大腸에 전하여 진 경우와, 腎經陰虛하여 潤腸하지 못하는 경우와, 肝經血熱이 腸에 滲漏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질병의 由來는 各臟에서 발생하여 腸으로 전변된 것이므로 먼저 標에 해당하는 腸을 治療하고 나중에 本에 해당하는 各臟을 치료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便血은 後陰으로 나오는 것이므로 肺腎을 동시에 치료하여 腸氣를 견고하게 하여야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女子의 崩漏를 치료하는데 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尿血'에서는 熱結膀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尿血은 太陽陽明傳經之熱이 下焦에 침범하여 발생하므로 仲景桃仁承氣湯을 응용하고, 心經遺熱이 小腸에 침범하는 경우에는 導赤散을 응용하고, 肝經遺熱이 血室에 침범한 경우에는 龍膽瀉肝湯을 응용하여야 한

다. 만약 尿血에 心肝을 治療하였으나 治療되지 않는 경우에는 마땅히 肺를 治療하여야 하니 肺金이 淸하면 水淸하여 血寧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들을 종합하여 唐宗海의 肺를 爲主로 한 辨證論治한 思想과 臨床經驗이 매우 많아 후세에 血證硏究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고 하였다.

본 論文은 肺와 관련된 血證인 咳血, 咯血, 汗血, 血箭, 鼻衄, 便血, 尿血에 대하여 정확한 辨證論治를 하여야 한다는 연구를 한 것으로, 해당 證候에 사용할 수 있는 藥物에 대하여서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4. 浙江中醫學院學報 1997年 6月 pp. 53-54.

唐氏血症病後調攝心要初探

海軍第四一一醫院 汪自源 徐重明, 浙江中醫學院 黃眞

여기에서는 唐宗海의 血症症後의 調理方法에 대하여 일곱가지로 나누어 언급하였다.
'血症病後須防時復'에서는 血症病이 있었던 사람이 氣血의 偏盛이나 天氣의 偏盛에 의하여 다시 血症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원인은 주로 瘀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病家나 醫家모두가 調理를 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血症病後忌過汗亡陰 忌剛燥'에서는 血家는 感冒에 걸려 陰血이 손상되면 發汗시킬 수 없기 때문에 感冒가 가장 큰 적이라고 하였다. 즉 發汗하면 氣가 發泄되고 汗出過多하면 傷血하기 때문에 發汗하여 氣分의 水를 다시 損傷시키면 陰分의 血이 손상된다고 하여, 모든 血症에 發汗法을 사용하면 않되고, 和解하는 方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血家는 陰虛陽盛하기 때문에 陰血을 剛燥하게 하여 血症이 다른 病症으로 傳變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
'血症病後忌吐'에서는 血家에게는 升發하여 動血하게 하는 것은 氣不安하여 血不安하게 되므로 禁忌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吐法을 사용하면 氣逆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므로 血症이 다시 나타나게 한다고 하여 吐法의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血症病後忌內傷飮食'에서는 失血이 있은 사람이 內傷飮食하게 되면 食積이 壅滯되어 內熱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서, 內熱이 肺로 가면 咳嗽가 되고, 心肺로 가면 煩躁 血不安하게 되고, 脾로 가서 消化不良의 증상을 나타나게 한다고 하였다.
'血症病後戒勞'에서는 靜하면 氣平하여 生陰하고 動하면 氣躁하여 生陽하므로 血症病

後에 勞倦하여 升陽動氣하게 되어 血病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勞復이라 하고 마땅히 靜養하는 방법으로 調理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血病後 條理하는 방법은 血症治療의 補助手段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血症病後戒欲'에서는 失血된 사람은 養息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 만일 房勞를 禁하지 못하면 목숨을 재촉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房勞하여 精血을 손상시키면 水虛火發하고 氣動血升하게 되어 血症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血症病後戒怒'에서는 木氣는 沖和條達하는 것이므로 血脈이 通暢하는 것인데 가령 木鬱되어 火가 生하면 血不和하여 吐血 등 血證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戒勞하고 아울러 戒怒하여 木火氣運이 소통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一切의 血症은 모두 肝을 다스려야 한다는 調攝原則을 강조하였다.

본 論文은 唐宗海의 血證後의 調理에 있어서 季節, 身體條件, 飮食, 發汗, 催吐 등의 여러 가지 狀況에 모두 주의하여야 血證이 再發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硏究한 것으로 現在 臨床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5. 四川中醫 1997年 6期 pp. 5-6.
唐容川血證論中氣血水火辨證關係探析
黑龍江鷄西時中醫院 慕建華 石建民 楚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血證論의 氣血水火의 辨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술을 하였다.
'氣血水火同源關係'에서 唐宗海는 水火氣血 등의 觀點을 계승하여 氣血 水火 水血 氣火 사이의 相互關係를 중시하여 "水卽化氣 火卽化血 …… 氣與水 本屬一家"라는 주장을 하였으며, 水氣失調로 인한 水病은 즉 氣病이라고 하였으며 火氣失調로 인한 火의 病은 즉 血의 病이라고 하였다.
'氣血水火同病同治辨證關係'에서는 治水는 곧 治氣이고 治氣는 곧 治水라는 理論과 治火는 곧 治血이라는 理論을 癥閉의 症狀으로 설명하였다.
'氣血水火諸病的整體治療'에서 血證의 辨證治療에는 氣血水火의 辨證을 위주로 하여야 하나 항상 臟腑의 病機를 고려하여 辨證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구체적으로 氣血水火의 諸病에 調理脾胃, 調肺舒肝, 瀉心補腎 등의 방법을 겸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본 論文은 血證의 治療에 있어서 降肺氣, 順胃氣, 納腎氣, 順血氣 등의 방법을 통하여 止血, 消瘀, 寧血, 補虛 등의 治療效果를 볼 수 있다는 唐宗海의 血證治療의 原則에 대하여 硏究한 논문이다.

6. 四川中醫 1997年 11期 pp. 3-4.

唐容川血證治脾探要

海軍第411醫院 汪自源 陳明霞 徐重明

血液이 脈管을 循行하지 못하고 넘쳐 외부로 나오는 出血症狀을 總稱하는 것으로 咳血, 衄血, 吐血, 便血, 尿血, 紫斑, 崩漏 등이 있다. 그 發生原因은 대부분 氣血水火陰陽失調로 인한 것이고, 간혹 脾氣와 관련이 되는 경우가 있다. 唐宗海의 血證論은 이러한 血證에 대하여 많은 理論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血證에 脾胃를 먼저 治療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연구한다.

'治血者必以治脾爲主'에서는 脾臟은 精血津液의 化生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의 心腎二臟은 先天에 속하는 것으로 後天의 脾氣의 영양공급에 의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므로 心腎의 작용으로 인하여 化生하는 血病을 治療하는 경우에 반드시 治脾를 위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凡治氣者亦宜以脾爲主'에서는 氣血의 化生 및 運行은 주로 脾氣의 統攝作用과 관련이 깊다고 하고, 氣는 腎中에서 생기나 飮食을 먹으면 脾經에서 化水되고 영양분이 아래로 腎에 공급되고 腎의 陽氣가 물에서 熏蒸되어 상승하니 淸氣가 상승하여 津液이 전신에 공급되고, 濁氣가 하강하여 水道가 下行하여 나쁜 기운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治氣에는 治脾를 爲主하여야 하니 六君子湯으로 和脾利水하여 調氣시키고, 眞武湯으로 扶脾鎭水하여 生氣시키고, 十棗陷胸等湯으로 攻脾奪水하여 通氣시키는 것이니 이것이 水邪를 제거하여 補氣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治氣할 경우에는 반드시 脾를 爲主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血證調治脾胃 須分陰陽'에서는 五臟은 모두 脾로부터 기운을 받기 때문에 補劑를 사용할 경우에 脾를 위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血證에 脾胃를 調治할 경우 모름지기 陰陽을 분별하여야 한다. 脾陽·脾陰이 不足하면 水穀이 소화되지 않게 되니 이는 밥을 끓일 때 밥솥에 불이 없으면 밥이 익지 않고, 밥솥 속의 살에 물이 없으면 또한 익지 않는 이치와 같은 것이라고 하고 治療는 歸脾湯으로 補脾氣하되 香砂六君子湯이나 補中益氣湯 등으로 脾陽을 補하고, 甲己化土湯으로 脾陰을 滋潤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본 論文은 血證治療에 있어서 脾胃가 중요하다는 主張을 硏究한 것으로, 血證을 氣血로 辨證하되 모두 脾胃를 주로 治療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脾胃를 治療할 때 먼저 陰陽을 辨別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硏究한 것이다.

7. 四川中醫 1998年 10期 pp. 3-4.

論唐宗海的血證治療思想在婦科的應用

中國中醫硏究院中國醫史文獻硏究所 王咪咪

唐宗海는 淸代의 저명한 醫學家로 특히 血證의 治療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으로 그는 止血·消瘀·寧血·補血을 四大綱領으로 하고, 氣血水火의 辨證施治를 하여야 하는데, 특히 脾臟治療를 먼저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血證論중에서 婦人科와 관련이 있는 부분에 나타난 唐宗海의 治療思想에 대하여 연구한다고 하였다.

'血證論中對經血的論治'에서는 女子에 있어서 經血의 生理的인 特徵을 설명하였고, 氣中之水를 調理하여 滋血시키고, 血中之氣를 調理하여 利水시키는 것이 女子의 調經之法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血熱·血寒·血虛·血滯 등의 원인에 따라서 治療하는 藥物이 달라짐을 설명하였다.

'血證論中對崩帶的論治'에서는 脾臟을 치료하는 것이 帶下를 치료하는 것이고 帶下를 치료하는 것은 즉 治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帶下는 脾腎이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한편 崩漏와 帶下는 根本이 같으므로 脾臟을 먼저 治療하여야 하는 原則을 제시하였고, 또 肝臟을 治療하여 脾氣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하니 肝經怒火妄動하면 補脾土 淸肝火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血證論對産血的論治'에서는 胎産은 氣化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護胎에는 調氣를 催生에는 行氣시켜야 한다고 하였고, 아울러 産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證候에 대한 分析과 使用藥物에 대하여 姙娠陣痛에는 佛手散을, 産後에는 瘀血이 있으므로 芎歸失笑散 및 生化湯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어떠한 疾病이라도 반드시 辨證論治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특히 産後와 吐血의 辨證을 産後에는 脫症이 많이 나타나고 吐血은 氣가 上逆하므로 脫症이 적으므로, 吐血에는 宣降하고 産後에는 升發시키는 治療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본 論文에서는 血證중 婦人科系統의 疾患에 대하여 연구한 것으로, 月經·崩漏·帶下·産血 등에 대하여 氣血辨證 및 臟腑辨證을 통하여 治療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硏

究하였다.

8. 四川中醫 2001年 3期 pp. 8-9.
唐宗海治血證之大旨
四川溫江縣中醫醫院 袁國淸 高永平

여기에서는 唐宗海의 血證治療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여 唐宗海의 血證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理論本於內難'에서는 唐宗海의 血證에 관한 論述은 內經과 難經에서의 陰陽水化氣血 및 臟腑病機 등을 基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血證의 發生은 寒熱虛實을 不問하고 모두 五藏氣能의 失調가 原因이 된다고 하였다.
'立法源出傷寒'에서는 血證發生의 機轉은 모두 臟腑機能失調이며 傷寒論의 小柴胡湯과 같은 和法이 血證을 治療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傷寒論의 理論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시킨 것이라고 하였다.
'遣方切合臨床'에서는 吐血은 衛氣上逆하였기 때문에 瀉心湯을 사용하고, 咳血은 肝肺에 原因이 있으니 小柴胡湯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處方을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자신의 臨床經驗을 土臺로 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用藥別具慧眼'에서는 血證治療의 藥物에 있어서 降氣에는 大黃을, 化瘀推崇에는 花蕊石을 滋脾에는 人蔘·天花粉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독특한 주장을 하였으며, 血證의 治療에 剛燥한 藥物들을 禁忌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生薑과 附子같이 剛燥한 藥物도 使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唐宗海의 血證治療는 內經·難經·仲景의 이론을 根本으로 臟腑에 따르는 辨證을 하였고, 處方構成에 있어서도 制方原則에 맞으면서 臨床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藥物에 있어서 唐宗海만의 독특한 주장을 하였다고 하였다.
본 論文은 唐宗海의 血證에 대한 思想에 대하여 연구한 것으로, 理論은 內經·難經을, 處方은 傷寒論을 根據로 하여 발전시켰으며, 풍부한 臨床經驗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藥物의 選擇에 있어서도 오묘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하였다.

III. 結　　論

이상의 唐宗海에 대한 硏究중 몇종의 中國雜誌에 나타난 내용들을 살펴보아 硏究動向을 考察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唐宗海에 대한 硏究論文의 大部分은 그의 故鄕인 四川地域에서 출판된 雜誌에 많이 揭載되었다.

2. 대부분의 雜誌에서 唐宗海의 血證에 관한 醫學思想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3. 唐宗海에 대한 硏究論文發表는 海軍第四一一醫院의 汪自源 徐重明이 많은 발표를 하였다.

4. 대부분의 論文은 血證論의 原文을 그대로 引用하면서 唐宗海의 醫學思想에 대한 臨床經驗을 설명하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의 硏究方法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參考文獻

1. 尹國有, 血證論吐血證治特点初探, 四川中醫 1993年 3月 pp. 8-9
2. 汪自源 徐重明, 唐容川治血以治冲證治經驗, 遼寧中醫雜誌 1997年 2月 pp. 62-63.
3. 汪自源 徐重明, 唐容川血證從肺論治的經驗探述, 四川中醫 1997年 4期 pp. 4-5
4. 汪自源 徐重明 黃眞, 唐氏血症病後調攝心要初探, 浙江中醫學院學報 1997年 6月 pp. 53-54.
5. 慕建華 石建民 楚坤, 唐容川血證論中氣血水火辨證關係探析, 四川中醫 1997年 6期 pp. 5-6.
6. 汪自源 陳明霞 徐重明, 唐容川血證治脾探要, 四川中醫 1997年 11期 pp. 3-4.
7. 王咪咪, 論唐宗海的血證治療思想在婦科的應用, 四川中醫 1998年 10期 pp. 3-4.
8. 袁國淸 高永平, 唐宗海治血證之大旨, 四川中醫 2001年 3期 pp. 8-9.